40년 시민사랑 받아온 구동체육관·시민회관

'종합복지 센터'로 만든다

473억 들여 2010년 완공…가칭 '빛고을 시민센터'

40여년동안 광주시민들의 체육과 문화 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온 남구 '구동 체육관'과 '시민회관'이 복지·건강·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로 새롭게 조성된다.

광주시는 12일 시설이 오래돼 활용도가 떨어진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과 구동체육관을 철거한 뒤 다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가칭 '빛고을 시민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건강·문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센터에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도 함께 갖춰진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철거되는 시민회관의 기능을 대체할 1천여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한다. 또 실내 농구장을 건설해 체육관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실, 복지단체 사무실도 들어선다.

빛고을 시민센터는 2008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0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4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65년 7월 개관한 구동체육관은 부지 5천448㎡에 연면적 4천236㎡, 지상 2층에 관람석은 2천200석 규모다. 예식장 등을 갖춘 시민회관은 지난 1971년 건립 뒤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이용건수가 월 10여건에 불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빛고을 시민센터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목적 시설을 집중 배치해 광주공원을 찾는 노인들에게 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지하철역에 무료 이·미용실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에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 이·미용실이 문을 열었다. 이 곳은 충장라이온스클럽과 청솔여성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상무 미관광장 이용시설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변에 대한 시민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상무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롯데마트까지 445m 구간에 '걷고 싶은 거리'를, 미관광장 남측 146m 구간 1천703평에 청소년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구상이다.

응모 희망자는 신분증과 응모신청서, 기본계획서, 조성계획도 각 1부를 서구청 도시개발과(062-360-7511)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민정기자 viola@

문학-김수봉, 미술- 김영태·박광구, 국악- 정철호씨

2006 광주시 문화예술상 수상

〈김수봉씨〉

〈김영태씨〉

〈박광구씨〉

〈정철호씨〉

광주시는 12일 수필가 김수봉(68)· 서양화가 김영태(79)·조각가 박광구(44)·국악인 정철호(84)씨 등 4명을 문학·미술·국악 등 3개부문의 '2006 광주시 문화예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학부문 '박용철 문학상'을 수상한 김수봉 전 살레시오고 교감은 '삼밭에 죽순 나니' 등 향토색 짙은 수필집을 많이 냈으며, 광주문인협회장을 맡으며 시민 백일장과 근로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 '문학과의 만남'이라는 다양한 문학행사 활동으로 시민 문화 향유권 제고에 기여했다.

오지호 미술상 본상 수상자인 김영태씨는 40여년전에 광주일요화가회를 창립, 지역 미술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한국 미술을 널리 알리는 등 미술발전에 공헌했다. 오지호 미술상 특별상을 받은 박광구 석산고 교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표현 양식으로 한국 조각계의 차세대 주자로 손꼽혀왔다.

임방울국악상 수상자인 정철호 사단법인 판소리 고법보존회 이사장은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로 임방울 선생 예술정신과 유파 전승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는 문화예술단체의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한국 문화예술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지역 출신 오지호·허백련·박용철·임방울 선생의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큰 예술인에게 주어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북구 "지역혁신 우리가 최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성공사례 발표

광주시 북구청의 '아름다운마을 만들기'운동이 주민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북구청은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북구청의'아름다운마을 만들기'운동이 지자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과 성공사례 발표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시작된 북구청의 '아름다운마을 만들기'운동은 26개동 주민들이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을삶터 가꾸기 ▲마을의 인재육성 ▲지역 공동체 형성 등 3개 부문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마을 삶터 가꾸기는 마을가꾸기·건강관리 시설·주민편익· 문화예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골목 가꾸기·쌈지공원 조성·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169개 사업을 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운동이다.

마을의 인재육성에는 YMCA·대학 연구소·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이 참여해 찾아가는 자치강좌·주민자치학교 등을 열어 그동안 7천여명의 주민들이 거쳐갔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및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랑나눔 공부방 운영· 영산강 어메니티 운동· 쓰레기 없는 동네 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도로부지 보상업무 등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도로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부지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12일 "2008년까지 도로부지내 사유지 전수조사와 손실보상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 도로관리 총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손작업에 의존했던 연간 3천500여건에 달하는 토지 보상업무 처리를 전산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도로개설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등이 어려운 잔여토지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활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매를 통해 전문 부동산 업자 등이 도로부지를 매수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보상여부 사전조회 의무화와 행정기관 우선 매수권 인정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해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13일) 오민근 222-6544
- 법무사회 법률상담(13일)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 광주 YWCA 524-5400
- 주부교실 232-0643~4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 전남경찰청 226-0112
-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